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20】 2011. 12. 23.

동유럽 주요국의 교역현황과 경제전망

목 차

I. EU 회원국의 교역동향 ····· 1

II. 유럽 재정위기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 5

III. 동유럽 경제전망 및 대외변수 ·····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그리스 발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2011년 11월 이후 유로존 중심에서 동유럽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EU 회원국의 교역동향, 유럽 재정위기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동유럽 경제전망 및 대외변수 등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함. 본고의 분석대상은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 실적이 많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주요 5개국[1]임.

I. EU 회원국의 교역동향

1. EU 역외 수출입 추이

□ EU의 대 미국 수출은 감소추세, 대 중국 수출은 증가추세 시현

○ EU-27 회원국의 역외 수출규모는 2009년 1조 944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16.4% 감소함. EU 회원국의 지역별 수출비중은 유럽(EU-27 회원국 이외) 26.3%, 아시아 23.8%, 북미 20.8%, 지중해연안 13.7%, 아프리카 9.9% 등임.

○ EU-27 회원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 스위스, 중국, 러시아, 터키 등으로 2005년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기준으로 EU-27 회원국의 역외 수출비중은 미국 18.7%, 중국 7.5% 등이며, 우리나라는 2.0%로 EU의 제13위 수출상대국을 차지함(<표 1> 참조).

1) <표> 우리나라의 대 동유럽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실적 비교표

	수출실적(백만 달러)		해외직접투자실적(천 달러)	
	2010(증감률)	2011. 1-10(증감률)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체 코	1,165 (+51.0)	1,370 (+48.2)	49	1,052,751
헝 가 리	2,385 (+40.0)	1,283 (△36.5)	67	367,467
폴 란 드	4,381 (+5.7)	3,369 (△8.9)	131	1,284,021
루 마 니 아	456 (+17.9)	393 (+13.0)	27	431,873
슬로바키아	4,424 (+41.0)	3,455 (△8.1)	86	939,863
우 리 나 라	466,384 (+28.3)	461,755 (+21.2)	50,796	182,171,014

주: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1년 9월 말 잔액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수출입은행.

<표 1> EU 회원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별 수출추이

단위: 억 유로

주요 수출대상국		2007		2008		2009	
		수출총액	점유율	수출총액	점유율	수출총액	점유율
1	미 국	2,615	21.1	2,501	19.1	2,047	18.7
2	스 위 스	928	7.5	980	7.5	883	8.1
3	중 국	719	5.8	784	6.0	816	7.5
4	러 시 아	891	7.2	1,050	8.0	655	6.0
5	터 키	527	4.2	541	4.1	437	4.0
6	노 르 웨 이	436	3.5	438	3.3	375	3.4
7	일 본	437	3.5	423	3.2	359	3.3
8	인 도	295	2.4	316	2.4	275	2.5
9	U A E	269	2.2	317	2.4	250	2.3
10	캐 나 다	259	2.1	261	2.0	224	2.0
11	호 주	227	1.8	252	1.9	218	2.0
12	브 라 질	213	1.7	263	2.0	216	2.0
13	**한 국**	**248**	**2.0**	**256**	**2.0**	**215**	**2.0**
14	싱 가 포 르	206	1.7	221	1.7	204	1.9
15	홍 콩	209	1.7	211	1.6	196	1.8
16	사 우 디	201	1.6	213	1.6	195	1.8
17	남 아 공	205	1.7	202	1.5	160	1.5
18	멕 시 코	210	1.7	219	1.7	159	1.4
19	알 제 리	113	0.9	154	1.2	147	1.3
20	우 크 라 이 나	224	1.8	251	1.9	139	1.3
수출 총계		12,405	100	13,098	100	10,944	100

주: 주요 수출상대국 순위는 2009년 실적 기준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 Trade- Statistical Yearbook*, 2011.

□ EU의 대 러시아 수입 감소

○ EU-27 회원국의 역외 수입규모는 2009년 1조 1,992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23.4% 감소함. EU 회원국의 지역별 수입비중은 아시아 37.2%, 유럽(EU-27 회원국 이외) 26.7%, 북미 14.8%, 지중해연안 9.7%, 아프리카 8.9% 등임.

○ EU-27 회원국의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 미국,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으로 2008년 이후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상승한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입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EU-27 회원국의 역외 수입비중은 중국 17.9%, 미국 13.3%, 러시아 9.6% 등이며, 우리나라는 2.7%로 EU의 제8위 수입상대국임(<표 2> 참조).

<표 2> EU 회원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별 수입추이

단위: 억 유로

주요 수입대상국		2007		2008		2009	
		수입총액	점유율	수입총액	점유율	수입총액	점유율
1	중 국	2,327	16.2	2,479	15.8	2,148	17.9
2	미 국	1,817	12.7	1,868	11.9	1,595	13.3
3	러 시 아	1,445	10.1	1,778	11.4	1,153	9.6
4	스 위 스	770	5.4	803	5.1	738	6.2
5	노 르 웨 이	767	5.3	959	6.1	686	5.7
6	일 본	784	5.5	751	4.8	558	4.7
7	터 키	470	3.3	460	2.9	361	3.0
8	**한 국**	**414**	**2.9**	**396**	**2.5**	**321**	**2.7**
9	브 라 질	328	2.3	359	2.3	257	2.1
10	인 도	266	1.9	295	1.9	254	2.1
11	리 비 아	274	1.9	351	2.2	200	1.7
12	캐 나 다	233	1.6	238	1.5	178	1.5
13	대 만	260	1.8	241	1.5	176	1.5
14	알 제 리	206	1.4	283	1.8	174	1.4
15	남 아 공	209	1.5	224	1.4	149	1.2
16	말 레 이 시 아	181	1.3	175	1.1	146	1.2
17	싱 가 포 르	184	1.3	161	1.0	146	1.2
18	태 국	166	1.2	175	1.1	143	1.2
19	인 도 네 시 아	128	0.9	136	0.9	116	1.0
20	사 우 디	185	1.3	220	1.4	110	0.9
수입 총계		14,334	100	15,649	100	11,992	100

주: 주요 수입상대국 순위는 2009년 실적 기준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 Trade- Statistical Yearbook*, 2011.

2. EU 역내외 무역수지 추이

□ EU 회원국의 역내 무역불균형 현상 지속

○ EU-27 회원국의 역외 무역수지는 2007년 1,929억 유로, 2008년 2,551억 유로, 2009년 1,048억 유로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함(<표 3> 참조).

<표 3> EU 회원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유로

	2007		2008		2009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벨 기 에	27,345	-13,194	25,010	-21,248	21,915	-9,081
불 가 리 아	-4,559	-3,790	-5,110	-4,780	-2,497	-2,442
체 코	**7,164**	**-4,005**	**10,508**	**-7,271**	**9,854**	**-4,185**
덴 마 크	561	3,076	1,563	2,914	4,209	3,868
독 일	126,577	67,682	109,896	67,629	70,543	64,237
에 스 토 니 아	-3,352	-54	-2,762	333	-1,332	550
아 일 랜 드	13,479	14,045	13,793	14,596	21,390	16,740
그 리 스	-20,996	-17,433	-22,427	-21,107	-18,566	-9,938
스 페 인	-48,212	-51,025	-36,441	-58,276	-18,992	-30,534
프 랑 스	-52,381	393	-65,134	-2,610	-61,691	7,848
이 탈 리 아	6,721	-15,317	8,427	-21,461	-2,295	-2,760
사 이 프 러 스	-3,600	-1,668	-4,145	-1,981	-3,451	-1,265
라 트 비 아	-4,263	-854	-3,554	-524	-1,566	65
리 투 아 니 아	-4,072	-1,231	-2,474	-2,593	-170	-1,156
룩 셈 부 르 크	-335	-3,441	-725	-3,526	618	-3,056
헝 가 리	**6,518**	**-6,638**	**7,151**	**-7,448**	**8,583**	**-4,821**
몰 타	-1,454	227	-1,480	231	-1,418	60
네 덜 란 드	133,624	-91,202	152,316	-113,575	120,389	-81,145
오 스 트 리 아	-7,708	8,134	-8,738	6,695	-9,338	5,192
폴 란 드	**-7,953**	**-10,699**	**-11,828**	**-14,244**	**166**	**-9,455**
포 르 투 갈	-14,196	-5,271	-16,981	-6,244	-15,801	-3,188
루 마 니 아	**-15,314**	**-6,448**	**-16,069**	**-7,400**	**-6,880**	**-2,895**
슬 로 베 니 아	-1,756	692	-2,143	167	-478	241
슬 로 바 키 아	**4,056**	**-5,589**	**4,561**	**-6,444**	**4,938**	**-4,338**
핀 란 드	-855	6,927	-2,043	5,220	-3,340	4,749
스 웨 덴	-4,105	15,481	-4,358	14,437	-3,491	11,665
영 국	-62,459	-71,657	-51,213	-66,619	-43,704	-49,485
EU-27	0	-192,861	0	-255,128	0	-104,785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 Trade- Statistical Yearbook*, 2011.

○ EU-27 회원국의 무역수지 통계에서 2007~09년 중 역외 국가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인 반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벨기에 등으로 EU 회원국 대부분이 역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 동 기간 중 EU 역내 회원국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덴마크(8개국)이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19개국으로 나타남.

○ 요컨대, EU-27 회원국 중 역내외 무역수지 흑자를 모두 기록한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및 덴마크(3개국)에 불과한 반면, 역내외 무역수지 적자를 모두 기록한 국가는 영국,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및 리투아니아(8개국)로 무역수지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II. 유럽 재정위기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1. 동유럽 주요국의 수출·투자유치 실적

□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 동유럽 주요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 5개국)의 유럽 재정위기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이탈리아 5개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표 4> 참조).

- 현재 재정위기가 심화되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에 대한 동유럽 주요국의 역내 수출비중은 평균 2%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 동유럽 주요국의 EU 역내 수출실적(2009년 기준)에서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로는 루마니아(28.4%), 폴란드(13.6%), 헝가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수입수요 위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표 4> 동유럽 주요국의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수출규모

단위: 백만 유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역내수출
체코	297	159	290	1,925	3,572	68,643
헝가리	326	246	293	2,014	3,427	46,847
폴란드	593	369	381	2,565	6,689	77,916
루마니아	550	76	171	872	4,467	21,630
슬로바키아	259	34	134	934	2,398	34,631

주: 2009년 기준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 Trade- Statistical Yearbook*, 2011.

□ 유럽 재정위기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실적 미미

○ 동유럽 주요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을 투자국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 투자규모의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영국계 기업이 동유럽에 대한 투자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유럽 재정위기국의 동유럽에 대한 투자실적은 아직은 저조한데, 유럽 재정위기국의 체코,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실적은 전체의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폴란드에 대해 8.7%, 루마니아에 대해 13.7% 수준을 나타내 루마니아 및 폴란드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5> 동유럽 주요국에 대한 주요 직접투자국 비교

단위: %, 억 달러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1	독일	독일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2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독일
4	일본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5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스	영국
투자누계	1,245	699	1,960	703	507

주: 투자누계는 2010년 말 기준

자료: www.czechinvest.com, www.itdh.com, www.paiz.gov.pl, www.romtradeinvest.ro 및 www.sario.sk.

□ 그리스, 포르투갈 및 이탈리아의 대외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유럽 재정위기국 금융기관의 동유럽 주요국에 대한 대외자산(exposure)은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폴란드에 대한 대외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리스는 루마니아에 대해 최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표 6> 참조).

○ 동유럽 주요국에 대한 유럽 재정위기국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동유럽에 대해 그리스 21.6%, 포르투갈 13.0%, 이탈리아 12.5%인 반면, 스페인의 비중은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부연하면, 유럽 재정위기국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축소 또는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폴란드 및 루마니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표 6> 유럽 재정위기국 금융기관의 동유럽 주요국에 대한 대외자산

단위: 백만 달러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대외자산
그 리 스	3	206	8,931	20,686	-	137,879
아 일 랜 드	n.a.	n.a.	n.a.	n.a.	n.a.	356,277
포 르 투 갈	16	265	16,401	839	85	135,752
스 페 인	635	881	26,685	1,064	82	1,547,602
이 탈 리 아	16,671	23,395	47,337	13,702	19,573	962,407

주: 2011년 6월 말 기준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 Trade- Statistical Yearbook*, 2011.

2. 동유럽 주요국의 환율·주가 동향

□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통화가치 및 종합주가지수 변동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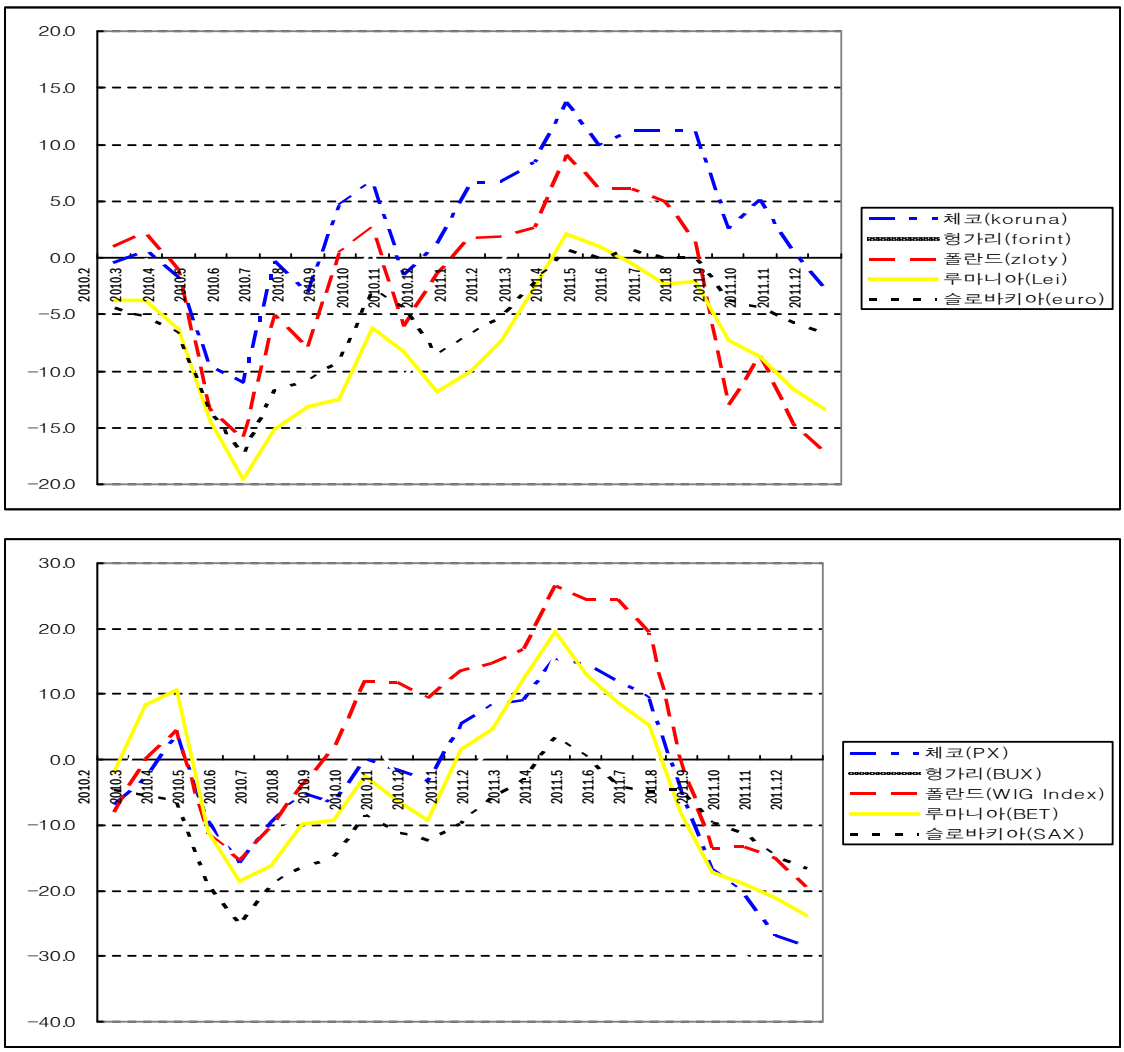
○ 그리스 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동유럽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그림> 참조).

- 동유럽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2010년 중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1년 상반기에 다시 상승추세를 시현했으나 하반기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 2011년 12월 기준으로 동유럽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2010년 1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체코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의 하락 속도가 더욱 큰 것으로 보임.

○ 또 동유럽 주요국의 주가 추이는 통화가치 변동 추이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동 기간 중 최대 하락폭을 나타낸 국가는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의 순임(<그림> 참조).

<그림> 동유럽 주요국의 통화가치 및 주가 변동 추이
(2010.2~2011.12)



주: 통화가치(상단) 및 종합주가지수(하단) 변동비율(%)은 2010년 1월 대비 변동률 계산
자료: Bloomberg.

□ 정부채권 신용등급: 체코 및 루마니아 상승, 헝가리 하락

○ 2010~11년 중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가 평가한 동유럽 주요국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은 유럽 재정위기국에 비해 아직은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 기간 중 체코, 및 루마니아 신용등급이 상승한 반면, 헝가리 신용등급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체코에 대해 S&P는 A/Positive에서 AA-/Stable로 상향조정하였고, 루마니아에 대해 Fitch는 BB+/Stable에서 BBB-/Stable로 역시 상향조정함. 반면, 헝가리에 대해서는 S&P가 BBB-/Negative에서 BB+/Negative로, Moody's가 Baa3/Negative에서 Ba1/Negative로 각각 하향조정함.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 주요국 정부채권 신용등급이 헝가리를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오히려 개선된 점은 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이 동유럽 경제상황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헝가리에 대해서는 S&P 및 Moody's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증함.

<표 7> 동유럽 주요국에 대한 정부채권 신용등급 평가 비교표

		S&P	Moody's	Fitch
체코	2010	A/Positive	A1/Stable	A+/Positive
	2011	**AA-/Stable**	A1/Stable	**A+/Stable**
헝가리	2010	BBB-/Negative	Baa3/Negative	BBB-/Negative
	2011	**BB+/Negative**	**Ba1/Negative**	BBB-/Negative
폴란드	2010	A-/Stable	A2/Stable	A-/Stable
	2011	A-/Stable	A2/Stable	A-/Stable
루마니아	2010	BB+/Stable	Baa3/Stable	BB+/Stable
	2011	BB+/Stable	Baa3/Stable	**BBB-/Stable**
슬로바키아	2010	A+/Stable	A1/Stable	A+/Stable
	2011	**A+/Positive**	A1/Stable	A+/Stable

자료: www.standardandpoors.com, www.moodys.com 및 www.fitchratings.com

III. 동유럽 경제전망 및 대외변수

1. 동유럽 주요국의 거시경제전망

□ 체코, 완만한 경기회복 추세로 경기 연착륙 전망

○ 부가가치세 인상(10%→14%(2012)→17.5%(2013)) 등으로 물가 상승, 소비지출 위축, 건설경기 악화 등이 예상되며, 내수 부진과 대외무역 위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체코는 독일 등 유로존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2012년에는 완만한 회복 속에 경제 연착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임금 감축(10% 수준), 자영업자 등의 개인소득세 수입 감소, EU 기금을 통한 투자활동 약화 등으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상황이 급속히 개선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 경제부침 현상 지속 예상

○ 포린트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가계 등의 외채상환 부담 증가[2], 금융기관의 손실 증가에 따른 고용시장 축소, 투자환경 악화에 기인한 여신 긴축 등으로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3월에 발표한 구조개혁(노동시장, 보조금 제한 및 퇴직체제)을 위한 재정운용, 추가 개혁조치(임금 동결, 공공부문 구매 제한 및 고용세 지원축소), 재정수입조치(간접세율 인상, 사회보장기여율 인상, 고용세 지원폐지) 등을 통해 헝가리 정부는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함.

□ 폴란드,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로 제한적 성장 기대

○ 대외수요 위축으로 수출증가율이 2011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소비자·생산자 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투자·고용 증가 및 민간소비 확대 등에 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2)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65%는 스위스 프랑화 표시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저금리의 스위스 프랑화를 통한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에 기인함.

○ 2012년에는 불확실한 수요 전망,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기업부문의 투자활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단기적으로는 대외수요 악화 및 투자심리 저하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기준 등에 대한 재정개혁 부진, 재정긴축조치 시행(재정지출 기준, 임금기금 동결,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공공투자 지출 축소 등은 재정수지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 모르나 경제성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표 8> 동유럽 주요국의 국내경제지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재정수지/GDP		정부채무/GDP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독일	2.9	0.8	6.1	5.9	2.4	1.7	−1.3	−1.0	81.7	81.2
그리스	−5.5	−2.8	16.6	18.4	3.0	0.8	−8.9	−7.0	162.8	198.3
체코	1.8	0.7	6.8	7.0	1.8	2.7	−4.1	−3.8	39.9	41.9
헝가리	1.4	0.5	11.2	11.0	4.0	4.5	3.6	−2.8	75.9	76.5
폴란드	4.0	2.5	9.3	9.2	3.7	2.7	−5.6	−4.0	56.7	57.1
루마니아	1.7	2.1	8.2	7.8	5.9	3.4	−4.9	−3.7	34.0	35.8
슬로바키아	2.9	1.1	13.2	13.2	4.0	1.7	−5.8	−4.9	44.5	47.5
EU−27	1.6	0.6	9.7	9.8	3.0	2.0	−4.7	−4.0	82.5	84.9

자료: European Commission 및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루마니아,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경기회복 지연 전망

○ 루마니아는 EU, IMF, 세계은행 등의 다국적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2년에는 유로존 등지의 경제상황 악화가 예상되면서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전망됨.

○ 공공인프라 현대화 요구 증대 및 EU 구조조정기금 지원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 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2년 총선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민간부문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슬로바키아, 산업 전반적인 경기위축 예상

○ 슬로바키아의 주요 무역상대국(독일 등)의 경제상황이 최근 상당히 악화됨에 따라 대외수요 및 무역이 2012년에는 현저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민간투자 지연, 물가상승 압박 완화, 경제성장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특히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 증가로 유발되는 산업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건설, 도매, 유통 및 농업 등 산업 전반적으로 경기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며, 가계소비 부진과 정부지출 억제(긴축재정정책 시행) 등과 더불어 투자증가율은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표 9> 동유럽 주요국의 대외거래지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교역조건		대외지급준비자산		실질실효환율		상품수지/GDP		경상수지/GDP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독일	−3.0	−0.1	유로존	유로존	1.4	0.6	5.5	4.9	5.1	4.4
그리스	−1.0	−0.9	유로존	유로존	−2.4	−4.5	−12.8	−11.9	−9.9	−7.9
체코	−1.0	0.0	44,524	44,604	3.5	−1.4	2.3	2.6	−3.6	−3.2
헝가리	−0.5	0.4	50,127	51,272	1.5	−3.9	4.6	6.2	1.7	3.2
폴란드	−0.5	−0.2	99,862	98,100	−0.9	−4.7	−1.8	−1.3	−5.0	−4.3
루마니아	0.7	−0.2	49,571	53,179	4.0	1.1	−3.8	−3.9	−4.1	−5.0
슬로바키아	−0.4	−0.7	유로존	유로존	0.0	0.4	1.9	2.0	−0.7	−1.2
EU−27	−2.0	−0.1	..	..	4.1	−1.3	−0.6	−0.5	−0.3	0.0

자료: European Commission 및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 경제적 대외변수

□ EU, 재정협약 강화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2011년 12월 9일 개최된 유럽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재정안정동맹(Fiscal Stability Union) 결성을 위한 신 재정협약(a new "fiscal compact")이 합의됨(<표 10> 참조).

○ 동 재정협약은 1990년대 중반 당시 독일 재무장관(Theo Waigel)에 의해 제안되어 1997년에 채택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사실

상 개정(enhanced SGP)한 것으로서 재정위반시의 법적 구속력 강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조기구축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동 재정협약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EU 회원국의 재정위반에 대한 준수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과거 안정성장협약(SGP) 및 유로존 가입조건(마스트리히트 조약규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EU 회원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합의된 신 재정협약이 얼마나 잘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10> EU 재정협약의 주요 내용

안정성장협약 (SGP)	신 재정협약 (a new "fiscal compact")
- 재정안정을 위한 권고사항 1. 재정 적자/GDP: 3% 이내 2. 정부채무/GDP: 60% 이내	**- SGP 권고사항 위반에 대한 자동제재 규정** 1. 유로존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의결권 강화 2. 회원국 헌법 수준의 법규 시스템 개정 3. 국채 발행계획의 사전적 통지 의무화 **-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관련 규정 개정** 1. 2012년 7월 EFSF 대체 발효 (1년 단축) 2. 2012년 3월 재원한도(5천억 유로) 적합성 재평가 3. 긴급 금융지원 절차 개정 (집행위원회 및 ECB, 85% 가중다수결로 의결가능)

자료: European Council, "Statement by the Euro Area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Dec. 9, 2011.

□ 동유럽, IMF 차관 지원요청 등으로 경제위기 대처

○ 그리스 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동유럽도 이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말 이후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IMF 등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 동유럽 국가별로는 헝가리, 라트비아 및 우크라이나가 2008년 말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데 이어 루마니아, 세르비아, 폴란드 등도 IMF 차관을 지원받으면서 동유럽도 경제위기 극복 및 대응 방안이 강구됨.

○ 루마니아는 2009년 5월, IMF로부터 176억 달러(11,443백만 SDR)의 대기성차관(SBA) 승인액 중에서 161억 달러(10,569백만 SDR)를 대출받은 데 이어 2011년 3월, 2년간 49억 달러(3,091백만 SDR)를 추가 지원받음. 우크라이나는 2008년

11월, 170억 달러(110억 SDR)의 대기성차관을 승인받은 데 이어 2010년 7월, 153억 달러(100억 SDR)의 대기성차관을 추가 지원받음(<표 11> 참조).

○ 동유럽 국가 중 경제상황이 비교적 나은 폴란드는 멕시코, 콜롬비아와 더불어 IMF로부터 신축적신용공여(FCL) 성격의 차관을 2009년 5월, 1년간 211억 달러(13,690백만 SDR), 2010년 7월, 6개월간 209억 달러(13,690백만 SDR), 2011년 1월에는 2년간 304억 달러(19,166백만 달러)를 각각 승인 받았으나, 실제 인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유럽 재정위기 심화현상이 동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루마니아 및 폴란드의 유럽 재정위기국과의 무역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고, 헝가리 및 루마니아의 환율·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헝가리 정부채권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당분간 동유럽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표 11> 유럽 경제위기국의 IMF 차관 수혜현황

단위: 백만 SDR

	승인일(기간)	승인액	대출액	차관구분
그 리 스	2010. 5. 9 (3년)	26,433	15,619	대기성차관(SBA)
아 일 랜 드	2010.12.16 (3년)	19,466	7,741	확대신용공여(EFF)
포 르 투 갈	2011. 5.20 (3년)	23,742	9,078	확대신용공여(EFF)
헝 가 리	2008.11 6 (2년)	10,538	7,637	대기성차관(SBA)
폴 란 드	2011. 1.21 (2년)	19,166	-	신축적신용공여(FCL)
루 마 니 아	2011. 3.31 (2년)	3,091	-	대기성차관(SBA)
세 르 비 아	2011. 9.29 (1.5년)	935	-	대기성차관(SBA)
마 케 도 니 아	2011. 1.19 (2년)	413	197	예방적유동성공여(PLL)
보 스 니 아	2009. 7. 8 (3년)	1,015	338	대기성차관(SBA)
우 크 라 이 나	2010. 7.28 (2.5년)	10,000	2,250	대기성차관(SBA)
라 트 비 아	2008.12.23 (3년)	1,522	982	대기성차관(SBA)
아 르 메 니 아	2010. 6.28 (3년)	133	56	확대신용공여(EFF)

주: 미달러/SDR 평균환율은 2009년 1.54205, 2010년 1.52571, 2011년 1-9월 1.58442 적용
자료: IMF, “Financial Activities”, Dec. 8, 2011 및 “Financial Position in the Fund”, Nov. 30, 2011.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